『한비자』에서 자유의 의미에 관한 일고찰*

고은강**

〈차 례〉

1. 문제 제기
2. 인간의 본능에 기반을 둔 법(法)
3. 법치(法治): 군주의 공권력 독점
4. 법과 자유
  1) 법으로부터의 자유: 법의 무력화
  2) 법을 위한 자유: 군주의 무위(無爲)
Ⅴ. 결론: 무위의, 무위에 의한, 무위를 위한 자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법가(法家) 사상의 대표적인 문헌으로 알려진『한비자(韓非子)』에서 자유의 의미를 고찰한다.『한비자』에는 군주, 신하, 백성이라는 세 행동주체가 언급된다.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위해를 회피하는 인간의 본능을 전제로 한『한비자』의 논의에서 백성은 본능에 충실한 존재로서 서술되어 자유를 논하기 어렵다. 문제는 신하와 군주다.『한비자』에서 신하의 私의 추구를 '불간섭의 소극적 자유'로 본다면, 이를 제한하는 법은 신하의 '자유'와 대립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된다. 법은 신하의 자유를, 신하들이 사사로움을 추구할 때, 법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며, 그 제한은 군주의 통치권 독점에 근거하여 정당하다. 군주는 사사로움(私)을 추구하여 법을 무력화하려는 신하를 두 개의 몽둥이(二柄), 즉 상과 벌로 통제한다. 신하들이란 이익을 추구하고 위해를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법과 자유의 관계를 논할 때, 『한비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신하가 아닌 군주의 자유다. 『한비자』에서 군주는 통치권을 독점하며 자신의 의지로 국가를 통치해야만 하는 존재다. 『한비자』에서 군주는 신하와 백성과는 달리, '자유로운 존재'로 설정된다. 그러나 『한비자』에서 군주에게 부여된 자유의 의미는 불간섭의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군주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적인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만 법을 독점할 수 있다. 군주는 법을 독점하기 위해 무위를 실천한다. 무위의 자유란 '텅 빈' 상태를 유지하여 '밝은' 군주로서 사사로움을 누르고 법을 관철하기 위해 군주 자신의 의지와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는 적극적 자유다.

주제어: 한비자, 법가, 자유, 본능, 법.

1. 문제 제기

자유라는 개념이 철학 및 윤리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철학 전통에서 자유의 개념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는 중국철학 중심, 유학 중심의 연구 전통과도 일정정도 관련이 있다. 소위 '서구'와 대별되는 동아시아의 전통을 유학에서 찾는 경향은 개인 중심의 '서구'와는 구별되는 공동체 중

심의 인간관으로 유학을 해석하였다.[1]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 개념은 서양철학에서 갖는 중요성과는 달리, 동양철학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개념으로 취급되거나 혹은 서양철학에서 논의되는 자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천웨이핑(陳衛平)은 동서양의 철학사상을 비교하며 동서양의 자유관을 언급하였다. 그는 공자로부터 노장(老莊)사상, 송명 리학(理學)에 이르기까지 천명(天命)사상에 근거한 숙명론[2]이 자리잡고 있으며, 따라서 '자유 의지를 토론할 여지가 없었다.'[3]고 주장한다. 숙명론의 틀 안에서 자유란 공자의 말대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 해도 법도를 거스르지 않는 것'[4]에 불과하며, 개인은 '천명대로 사는 자유'를 추구할 뿐이다. 그는 주희를 '자유를 절대 보편의 필연성과 동일시하는 면에서 가장 철저한 인물'[5]이라고 규정하며, '리학자들이 이해한 자유는 실질상 '리'라는 필연적 존재에 근거하여 자유를 삼켜버리는 것'[6]일뿐이라고 요약한다. 그는 자유론의 단초로서 순자, 왕간, 왕부지 등을 제시했는데, 그들이 미약하게나마 천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7] 천명과 자유를 대립시킨 그의 자유관은 전제정치 하에서 제

---

1) 박홍규는 "자유란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공동체로부터의 일탈을 부정적으로 의미한 말"이라고 본다(박홍규, 「유교와 인권」,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53집, 2007, p. 226.).

2) "서양의 신학에는 의지의 주체가 자유라고 승인하는 전통이 있는 반면, 중국의 유학에는 강대한 숙명론적 전통이 득세하였다."(陳衛平 편저, 고재욱 외 옮김, 『일곱 주제로 만나는 동서비교철학』, 예문서원, 1999, p. 289.

3) 陳衛平, 앞의 책, pp. 292-293.

4) 陳衛平, 앞의 책, p. 291.

5) 陳衛平, 앞의 책, p. 298.

6) 陳衛平, 앞의 책, p. 298.

7) "순자는 천명을 제어하고 그것을 이용하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런 사상은 오랫동안 사장되어 있었다. 그러다 명나라 중기에 들어서서 왕간은 선종

왕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헤겔은 동양에서는 단지 왕 한 사람만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였다.”[8]고 하였으나 유학 사상에서는 제왕 또한 천명을 받아 정치해야 한다는 점이 일관되게 강조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동서양 철학의 차이를 강조한 나머지, 동서양 철학을 막론하고 철학이란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헌과 철학자를 대상으로 자유 개념에 대한 개별 연구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웨이핑의 자유론과 같은 포괄적인 논의는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다. 개별 문헌, 개별 철학자의 맥락에서 자유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법가(法家) 사상의 대표적인 문헌으로 알려진 『한비자(韓非子)』에서 자유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 철학 전통에서 권력과 관련 하에 파악되는 자유 개념에 대한 이해에 일조하고자 한다. 법가 문헌으로 알려진 『한비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사상에 집중되었다.[9] 본 연구 역시 정치사상 문헌으로서 『한비자』 연구 맥락을 따른다. 불간섭을 골자로 하는 소극적 자유 개념에서 법은 흔히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제약한다는 의미에서

의 영향을 받아 처음으로 조명설(造命說)을 창시하였으며, 이후 왕부지도 성인은 “만물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으나 자신의 운명은 개척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안원 또한 사람의 힘이 천명을 바꿀 수 있다고는 하였으나, 비교적 미약한 맥박 정도임을 강조하였다.”(陳衛平, 앞의 책, p. 293).

8) 陳衛平, 앞의 책, p. 291.

9) 『한비자』의 정치사상을 특징짓는 법, 세, 술에 초점을 맞춘 최근 연구로는 박노현, 「한비자의 법·술·세치론」, 『동서비교문학저널』 제25호, 2011, pp. 81-106; 양순자, 「『한비자』의 법과 술의 관계 재조명」,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제34집, 2010, pp. 559-586; 이경무, 「한비자의 정치사상」,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제121집, 2012, pp. 71-94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 고재욱, 「한비자의 정치사상 연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제12집, 2004, pp. 407-444 등이 있다. 법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이동희, 「한비자의 법사상」,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제43집, 2008, pp. 263-283; 진희권, 「한비자의 법치의 재해석」,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9권 2호, 2006, pp. 289-314 등이 있다.

자유의 대립물로 인식되어 왔다. 서양철학의 전통에서 형성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는 대립 구도를 그대로 중국 고대철학의 텍스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중국 고대철학 텍스트에서는 '개인(invidisual)'으로서의 인간보다 '사회적 인간(person)'으로 정의된 인간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한비자』 역시 그러하다. 군주에게 통치 철학과 통치 방법에 대해 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가의 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논하는 『한비자』에서는 군주와 신하, 그리고 일반 백성과 법의 관계가 중심을 이룬다. 법에 의한 통제와 형벌을 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는 법가 사상에서 개인의 자유 역시 법과 대립할 것이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그 대립의 성격이 중요하다. 『한비자』에서 '법은 누구의 자유를 언제 어떤 이유로 제한하며 그 제한의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중국 고대철학에서 법과 자유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인간의 본능에 기반을 둔 法

『한비자』에서 법(法)은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전제한다.[10] '안전과 이익을 따르고 위험과 궁핍을 피하고자' 하는 인지상정(人之常情)으로 피통치자인 일반 백성과 신하의 행동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서란 그 자신을 아끼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11], "일반적으로 안전과 이익인 것은 따르고 위험과

10) 『한비자』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는 김진윤, 「先秦四家에 있어서 利의 의미」, 영남정치학회, 『영남정치학회보』 제5집, 1995, pp. 231-266; 황준연, 「한비자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인식」,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제27집, 2012, pp. 305-329 참조.

11) 『한비자』 원문 인용은 서명은 생략하고 편명만 표기. 「十過」夫人之情莫

해악인 것은 버리는 이것이 인간의 정서다"[12] 등의 관점이 『한비자』의 기조다. 자신을 아끼는 인간의 정서에는 "인간의 성정에 부모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13], "인간의 정서란 그 자식을 아끼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14]의 구절에 나타나는 '가족을 아끼는 정서'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포함된 집(家)에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고 위험과 해악, 궁핍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집을 지키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래 인용문은 백성들이 군주의 신민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특정 권력자나 가문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논리를 설명한다.

> 일반 백성들의 계산은 안전과 이익을 따르고 위험과 궁핍을 피하고자 한다.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전쟁에][15] 나아가도 적에게 죽고 물러서도 [전쟁은] 위험이다. 자신의 집안일을 버리고 [전쟁에서] 수고를 다 했는데 집안은 곤궁해지고 위에서는 논공행상에 거론되지 않으니 [전쟁은] 궁핍이다. 궁핍과 위험이 있는 곳을 백성이 어찌 피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러한 이유로 [백성은 국가가 아닌] 개인의 가문(私門)을 섬겨서 [병역에서] 풀려나고자 한다. [병역에서] 완전히 풀려나면 전쟁으로부터도 멀어 진다. 전쟁으로부터 멀어지면 안전하다. 뇌물을 써서 담당자에게 줄을 대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익이다. 안전과 이익이 있는 곳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국가에 속한] 공민(公民)은 적어지고 [개인의 가문에 속한] 사인(私人)이 많아지는 이유다.[16]

不愛其身.

12) 「姦劫弑臣」夫安利者就之 危害者去之 此人之情也.

13) 「五蠹」人之情性莫先於父母.

14) 「十過」人之情莫不愛其子.

15) 원문에 없는 말을 삽입할 때는 [ ]로 표시.

16) 「五蠹」民之政計 皆就安利如辟危窮 今爲之攻戰 進則死於敵 退則死於誅 則危矣 棄私家之事而必汗馬之勞 家困而上弗論 則窮矣 窮危之所在也 民安得勿避 故事私門而完解舍 解舍完則遠戰 遠戰則安 行貨賂而襲當塗者則求得

'안전과 이익을 따르고 위험과 궁핍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다. 『한비자』는 관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안전과 이익이면 따르고 위험과 해악이면 물리치는 것이 사람의 정서'라고 말한다.

> 안전과 이익인 것은 따르고 위험과 해악인 것은 버리는 이것이 인간의 정서다. 만약 신하가 되어 힘을 다해 공을 세우고 지력을 짜서 충성을 펼쳤는데도 그 자신은 곤궁하고 집은 궁핍하여 부모 자식이 그 피해를 입는데 반하여, 간신이 되어 사사로이(私) 군주를 가리고 재물을 써서 권력자를 섬기는데 그 자신은 존귀하게 되고 집은 부유하게 되어 부모 자식이 그 혜택을 입는다면, 사람들이 어찌 안전과 이익의 길을 버리고 위험과 해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는가?[17]

군주는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여 신하를 통제하고 백성을 신하에 속한 사인(私人)이 아니라 군주에 속한 공민(公民)으로 묶어 둔다. 이익을 따르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여 신하에게 상을 주고, 위험과 해악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을 이용하여 형벌을 내린다. 이 두 가지 통제 수단은 신하를 통제하여 통치를 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구로서, 『한비자』는 이를 '두 개의 몽둥이(二柄)'라 부른다.[18]

> 명석한 군주는 그 신하를 통제하기 위해 두 개의 몽둥이를 쓴다.

求得則私安 私安則利之所在 安得勿就 是以公民少而私人衆矣.

17) 「姦劫弑臣」夫安利者就之 危害者去之 此人之情也 今爲臣盡力以致功 竭智以陳忠者 其身困而家貧 父子罹其害 爲姦利以弊人主 行財貨以事貴重之臣者 身尊家富 父子被其澤 人焉能去安利之道而就危害之處哉.

18) 『한비자』에서 '사사로움에 대한 통제'에 관한 논의는 정용환, 「한비자의 통치술에서 사적 의도들의 문제」,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36집, 2006, pp. 19-39 참조.

> 두 개의 몽둥이란 형벌과 덕(德)이다. 형벌과 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죽이고 처벌하는 것을 형벌이라 하고 칭찬하고 상주는 것을 덕이라 한다. 남의 신하가 된 사람은 죄를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칭찬받고 상받는 것을 이롭게 여긴다. 따라서 군주는 자신이 그 형벌과 덕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러 신하가 그 권위를 두려워하고 그 이로움에 귀의할 것이다.[19]

상벌이라는 '두 개의 몽둥이(二柄)'는 '안전과 이익을 따르고 위험과 궁핍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몽둥이(二柄)'를 사용하면 일반 백성이든, 다른 사람의 신하된 사람이든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면 '두 개의 몽둥이(二柄)'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두 개의 몽둥이(二柄)'가 군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두 개의 몽둥이(二柄)'를 휘두르는 그 사람이 반드시 군주가 아니어도 그 사람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군주에게 통치의 핵심은 '두 개의 몽둥이(二柄)'가 간신(姦臣)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간신(姦臣)은 '다른 사람의 신하(人臣)'된 사람의 본분을 넘어, 군주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옳지 않은(姦)'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주를 빙자하여 그 사람을 벌주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군주를 빙자하여 그 사람을 상준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간신을 두려워하고 그 군주는 쉽게 여기게 된다.[20] '두 개의 몽둥이(二柄)'가 간신(姦臣)에게 넘어가게 되는 계기는 군주 자신에게 있다. '군주가 상벌의 권위와 이익이 자기로부터 나오도록 하지 않고 신하의 말만 듣

---

19) 「二柄」明主之所導制其臣者 二柄而已矣 二柄者 刑德也何謂刑德 曰 殺戮之謂刑 慶賞之謂德 爲人臣者畏誅罰而利慶賞 故人主自用其刑德 則群臣畏其威而歸其利矣.

20) 「二柄」所惡 則能得之其主而罪之 所愛 則能得之其主而賞之 今人主非使賞罰之威利出於已也 聽其臣而行其賞罰 則一國之人皆畏其臣而易其君 歸其臣而去其君矣.

고 그 상벌을 행'[21] 하게 할 때, 그 신하는 '다른 사람의 신하(人臣)'에서 간신(姦臣)이 되기 쉬우며, 군주는 허수아비가 되어 백성과 신하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3. 法治: 군주의 공권력 독점

『한비자』에서 군주는 인간의 본능에 기반을 둔 법의 관점에서 예외적인 존재다. '일반 백성들의 계산은 안전과 이익을 따르고 위험과 궁핍을 피하고자'하며 신하는 이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반하여, 군주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군주와 신하가 백성을 통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군주와 신하는 애초에 '길(道)'이 다르다. '길'은 한 개인이 군주답게 되고, 신하답게 되는[22] 방법을 의미하므로, 존재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 그 도는 함께 견줄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일자(唯一者)라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현명한 군주는 홀로 선 도의 모습을 존귀하게 여긴다. 군주와 신하는 도, 즉 존재방식을 달리한다. 신하는 명분을 내세워 작록을 구하고 군주는 그 명분을 붙잡아 두며 신하가 일한 성과를 공적으로 드러내면 군주가 그 공적과 명분을 대조하고, [그것이] 일치되면 상·하관계도 서로 조화된다.[23]

---

21) 「二柄」人主非使賞罰之威利出於已也 聽其臣而行其賞罰.

22) 『논어(論語)』에서 "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할 때의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바의' 군주다움, 신하다움을 의미한다.

23) 이운구 역, 『한비자 Ⅰ』, 한길사, 2002, pp. 119-120.
「揚權」道無雙 故曰一 是故明君貴獨道之容 君臣不同道 下以名禱 君操其名 臣效其形 形名參同 上下和調也.

군주는 법을 독점한다. 신하는 군주를 섬기는 사람이다. 일반 백성은 "군주를 섬길 것인가, 권력을 가진 신하의 집안(私門)을 섬길 것인가", "국가에 속한 공민(公民)이 될 것인가, 개인의 가문에 속한 사인(私人)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군주의 관점에서 신하는 통치에 필요하지만 권력 가까이에 있기에 신하에게는 군주의 영역을 침범하여 법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항존한다. 군주는 신하에게 통치에 필요한 권한을 일부 부여할 수밖에 없지만 법의 독점을 위해 신하를 완벽하게 제어해야만 한다. 『한비자』에서는 군주에 의한 신하의 제어야말로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이며 『한비자』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다.

『한비자』에서는 법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군주가 법을 독점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반복된다. 법 체제의 유지와 관련된 군주의 권위와 통제는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

> 권위는 빌려 줄 수 없으며 통제는 [통제가 나가는] 문을 공유하지 않는다. 권위와 통제가 공유되면 여러 악행이 창궐하게 되며, 법이 [법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군주의 행정이 위태롭게 되며, 형벌이 단행되지 않으면 악행이 헤아릴 수 없게 된다.[24]

군주가 독점해야 할 권위와 통제가 공유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은 『한비자』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다. 군주의 백성이 사가(私家)의 사인(私人)이 되는 단초는 군주 자신에게 있다. 군주는 신하를 아껴서는(愛) 안 된다. 총애받는 신하(愛臣)를 만들지 않으면 군주는 통치권을 독점할 수 있다.

> 신하를 아낀 나머지 지나치게 친하게 되면 반드시 [군주] 자신을 위태롭게 합니다. …중략… 제가 듣기로, 천승(千乘)의 군주에게 준비

24) 「有道」威不貸錯 制不共門 威制共則衆邪彰矣 法不信則君行危矣 刑不斷則邪不勝矣.

가 없으면 반드시 백승(百乘)의 신하가 그 측근에 있다가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옮기고 그 나라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중략… 그렇게 되면 간신(姦臣)은 번성하게 되고 군주의 길(主道)은 쇠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후가 비대해지는 것은 천자의 해가 되고 여러 신하들이 지나치게 부유해지는 것은 군주에게 실패가 됩니다. 장수와 재상이 군주를 멋대로 다뤄서[25] [자신들의] 가문을 융성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군주가 배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26]

통치권을 두고 군주는 신하와 대립적 관계다. 군주는 신하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쉽지 않다. 군주는 신(神)처럼 신하들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어야만 한다. 신하는 호시탐탐 군주의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군주는 자신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신하가 무리를 짓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신하를 부유하게 하여서도 안 되고 필요 이상의 지위를 주어서도 안 된다. 자주 가지치기를 하여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주의 권위는 일차적으로 법의 독점에 근거를 두지만, 동시에 신하의 사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유지된다. 신하가 사적 이익을 취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군주에 대항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 『한비자』의 논리다.

군주가 신(神)처럼 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 그 일처리가 정당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은 통상적인 관례를 들이댈 것이다. …중략… 대신(大臣)의 문하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두려워 할 일이다. 일반적으로, 잘 다스려진 상태의 극(極)에서는 아랫사람이 [다

---

25) 營을 글자 그대로 해석. 『韓非子集解』에는 營은 '현혹하다'로 해석. 營主謂營惑其主也(王先愼, 『韓非子集解』, 北京: 中華書局, 1998, p. 24.

26) 「愛臣」愛臣太親 必危其身 …중략… 臣聞千乘之君無備 必有百乘之臣在其側 以徙其民而傾其國 …중략… 是以姦臣蕃息 主道衰亡 是故諸侯之博大天子之害也 群臣之太富 君主之敗也 將相之管主而隆國家 此君人者所外也.

> 른 사람에게] 덕[27]을 베풀 수 없다. …중략…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모여 있는 무리[28]를 쳐야만 한다. 모여 있는 무리를 치지 못하면 그들 무리는 더 많은 군중을 모을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법이 확립되면 군주의 보배요 붕당이 갖춰지면 신하의 보배다.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지 않은 것은 붕당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통치의 방법을 터득한 군주는 그 신하의 가문을 부유하게 하지 않으며 그 신하를 귀하게 만들지 않는다. …중략… 군주된 자는 자주 [신하라는] 나무를 베어서 나무 가지가 무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 가지가 무성하면 공적인 문(公閘)을 막게 된다. [그러면] 사문(私門)은 튼실하게 되고 공적인 조정은 부실하게 되며 군주는 막히고 둘러싸이게 된다.[29]

『한비자』에서 '법(法)은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전제'하는데, 군주는 '인간의 본능에 기반을 둔 법의 관점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법을 독점한다. 군주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법에 의지하지 않는다. 군주는 덕을 입어야만 행동하고 형벌로 제제를 받아야만 행동을 멈추는 신하나 백성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군주는 '신(神)'과도 같이 전지전능하다. 신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全知), 모든 일을 항상 합당하게 처리한다(全能). 모든 일을 합당하게 처리하여 법이 되도록 함으로써 관례를 들이대며 법을 거부할 빌미를 신하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군주는 법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합당한 행동을 하는 존재다. 군주의

---

27) 得은 德이다. 앞서, 이병(二柄), 즉 刑과 德은 군주가 독점하여야 하며 신하가 사적으로 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지와 통한다.

28) 『韓非子集解』에 따르면, 聚는 朋黨을 가리킨다(王先愼, 앞의 책, p. 50).

29) 「揚權」主上不神 下將有因 其事不當 下考其常 …중략… 大臣之門 唯恐多人 凡治之極 下不能得 …중략… 欲爲其國 必伐其聚 不伐其聚 彼將聚衆 …중략… 故度量之立 主之寶也 黨與之具 臣之寶也 臣之所不弒其君者 黨與不具也 …중략… 有道之君 不貴其家 有道之君 不貴其臣 …중략… 爲人君者 數披其木 毋使木枝扶疏 木枝扶疏 將塞公閘 私門將實 公庭將虛 主將壅圍.

정당한 일처리는 신하의 관례에 따른 일처리가 관철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신하에 의한 백성의 사적 지배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군주가 무력을 사용하여 붕당을 척결하지 않아도, 법을 확립하여 사문(私門)을 튼실하게 하는 물줄기를 차단하면 붕당은 형성되기 어렵다.

4. 법과 자유

1) 법으로부터의 자유: 법의 무력화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대하여 법과 불법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 행동이나 상황은 법의 내부에 속한다. 반면,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그 행동이나 상황은 법의 외부에 속한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행동과 상황에 대하여, 일차적으로는 해당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행동과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적으로라도 법을 제정하여 행동과 상황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존재하지만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도 있다. 법의 효력이 정지되어 법이 무력화된 상태, 곧 '예외상태'다.

『한비자』에서 법의 외부는 법이 무력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한비자』에서 법은 군주의 전유물로 오직 군주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한비자』에 관한 연구가 공통으로 견지하는 관점이며, 흔히 『한비자』를 마키아벨리에 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30] 『한비자』에서 법이 무력화된 상태는 군주가 법을 독점하지

30) 강정인 · 정승현, 「동서양의 정치적 현실주의: 한비자와 마키아벨리」, 서

못하는 상황이다.

> 밝은 군주는 여러 신하들이 법의 바깥으로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법의 안에서 은혜를 행하지 못하게 하여, 움직임에 법이 아님이 없도록 한다. 법이란 법을 어기고 [법의] 바깥에서 사사로이 움직이는 것을 억누르는 수단이며, 엄한 형벌이란 명령을 따르게 하고 아랫사람을 응징하는 수단이다.[31]

군주는 법을 독점하여 체제에 속한 개인과 집단의 움직임이 오직 법대로 되도록 한다. '법을 어기고 [법의] 바깥으로 사사로이 움직이는' 개인 혹은 집단이 법과 형벌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때, 법은 무력화된다. 『한비자』에서 신하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은 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끊임없이 거론된다. 『한비자』는 오직 군주만이 법과 형벌을 독점하고, 군주의 독점에 위협이 되는 신하를 비롯한 잠재 세력을 철저히 통제하여야 하는 당위와 방법을 역설한다. 신하가 군주의 법에 복종하여야 국가가 통치된다.

위의 인용문은 법이 작동하는 상황, 즉 법의 바깥과 법의 안, 불법과 합법의 영역이 구분되는 상황에서 예외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사로운 움직임'을 엄한 형벌로 억누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신하들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일을 도모한다면 단지 불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모로 발전할 수도 있다. 신하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신하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사적으로 전용하여 일에 적용한다면 군주의 법 독점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움직임에 법이 아님이 없도

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2집, 2014, pp. 407-444.

31) 「有道」明主使其群臣不遊意於法之外 不爲惠於法之內 動無非法 法所以凌過遊外私也 嚴刑所以遂令懲下也.

록 한다"는 말은 "신하는 법이 실현되도록 하는 매개체일 뿐, 법이 군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왜곡할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신하는 군주의 법 독점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여러 신하들이 법의 바깥으로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법의 안에서 은혜를 행하지 못하게 하여, 움직임에 법이 아님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법이 무력화되는 예외상태로 갈 수 있는 일차적인 위협을 차단하는 조치다.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무언가를 해보려 도모하는 불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법의 융통성을 전용하여 사적인 은혜를 베푸는 합법적인 행동 역시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 오늘, 사사로이 구부러짐(曲)을 버리고 공적인 법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면 백성이 안정되고 국가는 다스려 질 것입니다. 사사로이 행함을 버리고 공적인 법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 병력은 강해지고 적군은 약해질 것입니다.[32]

『한비자』에서 법의 본질적인 속성은 公이며, 私는 법의 상대 개념이 된다. 私는 법을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행동이다. 곡(曲)은 공적이고 일관되어야 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군주의 통치란 사사로움과 구부러짐을 통해 법의 외부를 만드는 행동을 제한하고 공적인 법을 관철시키는 일이다.

2) 법을 위한 자유: 군주의 무위(無爲)

『한비자』에서 군주는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존

---

32) 「有道」當今之時 能去私曲・就公法者 民安而國治 能去私行 行公法者 則兵强而敵弱.

재다. 『한비자』에서 법이 안위를 추구하고 위해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전제로 만들어졌음을 생각할 때, 군주는 예외적인 존재다. 인간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신하와 백성과는 달리, 군주는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서 법을 수호한다. 군주의 길, 통치 방법을 제시하는 『한비자』「주도(主道)」편은 다음의 내용으로 시작한다.

> '길'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군주(明君)'가 ['길'이라는] 시작을 지키는 것은 만물의 근원을 알고 있음이며, 그 기준을 다스리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조짐을 알고 있음이다.[33]

'길'을 만물의 근원이라 말하는 것은 세상 만물이 길, 방법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길, 방법이 정해지면 그 방법을 실천하면 된다. '길'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길, 방법에 따른 실천인지, 아닌지 여부가 실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세상 만물은 실천의 결과물이므로, 특정 방법에 따른 실천은 특정 결과물을 산출한다. 군주의 길, 군주의 통치의 방법도 예외는 아니다. 군주의 길, 방법이라는 것은 모든 통치의 근원이며, 통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군주가 통치를 잘 한다는 것은 군주의 길을 성공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군주가 군주의 길을 잘 따라가면 통치는 잘 이루어진다.

'밝은 군주'의 통치란 제멋대로 하는 통치가 아니라 일정한 길, 방법에 따른 통치다.

---

33) 「主道」道者 萬物之始 是非之紀也 是以明君守始以知萬物之源 治紀以知善敗之端.

> [밝은 군주는] 텅 비고 고요한 상태에서 기다린다. 이름(名)을 명하려 하면 저절로 명명되고 일을 명하려 하면 저절로 정해진다. 텅 비면 실정을 알게 되고 고요하면 움직이는 정체를 알게 된다. 말해야 하는 자는 저절로 이름(名)을 말하게 되고, 일을 집행해야 하는 자는 저절로 실행하게 된다. 실행과 이름이 서로 일치하는지 보면, 군주는 [달리] 하는 일이 없이 그 실정을 돌이켜 볼 수 있다.[34]

'밝은 군주'의 길이란 '텅 비고 고요한(虛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텅 비고 고요한 상태'란 선입견이 없는 상태다. 선입견은 실정 파악을 어렵게 한다. 선입견이 배제된 상태에서라면 '이름(名)을 명하려 하면 저절로 명명'되고 "일을 명하려 하면 저절로 정해진다". 즉 문제화해야 하는 사안과 그 해결책이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군주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실정과 상관없이 선입견에 따라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논의할 사안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 이렇게 명명된 문제와 사안은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을 명할 때 어떤 일이 수반되어야 할 지 제대로 정하기 어렵다.

'밝은 군주'가 '텅 비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군주가 자신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기다리면, 문제나 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신하는 군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나 사안을 얼버무리지 않고 이름을 들어 말한다(爲名). 문제나 사안에 이름이 붙으면, 일을 집행하는 신하 역시 그 이름에 따라 일을 실행(爲形)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군주는 특정 문제, 특정 사안이라고 붙여 진 그 이름(爲名)이 이름대로 실현(爲形)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이름과 일이 실정에 맞는지 비추어 보는(歸)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군주의 선입견이

---

34) 「主道」故虛靜以待 令令名自命也 令事自定也 虛則知實之情 靜則知動者正 有言者自爲名 有事者自爲形 形名參同 君乃無事焉 歸之其情.

배제된 상태에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신하들이 실정에 따라 이름을 붙이고 그에 따라 일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군주는 실정을 별도의 작업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없다.

> 그러므로 말한다. 군주는 그 원하는 바를 드러냄이 없어야 한다. … 중략… (군주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싫어하는 것을 버리면 신하는 비로소 바탕을 드러낸다.35)

군주는 단지 바른 판단, 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텅 비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집행하는 신하를 통제하고 신하의 능력을 십분 끌어내기 위해서 '텅 비고 고요한 상태'를 활용한다. '텅 비고 고요한 상태'는 단지 실정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선입견이 배제된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의견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상태다. 군주가 자신이 좋아하는 바, 싫어하는 바를 드러내면, 신하는 실제 상황에 입각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군주의 호불호에만 반응하게 된다. 군주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라야 신하는 자신의 바탕, 즉 자신의 숨은 생각,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군주의 길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기고 비우는 것이다.

> [군주가] 지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아야 [신하와 백성들을 포함한] 만물로 하여금 그 마땅한 자리를 스스로 알게 할 수 있다. [군주가]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행사하지 않아야 신하가 [군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신하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바를 볼 수 있다. [군주가] 용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떨쳐

35) 「主道」君無見其所欲 …중략… 去好去惡, 臣乃見素.

일어나지 않아야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그 무용을 다하게 할 수 있다.[36]

'텅 비고 고요한 상태'라는 군주의 길, 군주의 통치 방법은 무위의 통치(無爲之治)[37]와 통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지혜를 버림으로써 도리어 총명해 질 수 있고 슬기를 버림으로써 도리어 공적을 세울 수 있으며 용기를 버림으로써 도리어 강해질 수 있다. 신하들로 하여금 직분을 지키게 하고 백관들로 하여금 일정한 법을 따르게 하여 각기 능력에 맞추어 일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습상(習常)이라고 한다. 이로써 말하기를 '너무나 조용하여 그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텅 비어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현명한 군주는 윗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신하들은 아래에서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38]

군주는 신하로부터 고립되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군주는 의

---

36) 「主道」有智而不以慮 使萬物知其處 有行而不以賢 觀臣下之所因 有勇而不以怒 使群臣盡其武.

37) 『한비자』에서 노자(老子)는 자주 언급되며 노자를 해설하는 「해로(解老)」 편도 존재한다. 「해로」 편에서는 인간됨의 핵심인 덕(德)을 무위(無爲)로 설명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덕이란 무위로써 모이고 무욕으로써 이루어진다(「解老」 凡德者 以無爲集 以無欲成)."고 하여, 무위를 덕을 쌓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자를 언급하지 않고도, 무위는 군주의 권력 독점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한비자』에서 제시된다. 『한비자』와 도가사상의 관련은 정세근, 「한비자의 노자 이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제56호, 2010, pp. 195-214; 허인섭, 「한비자의 도가사상 수용방식 고찰」,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제29집, 2008, pp. 225-253 참조. 法의 정당성을 노자의 道와 연결한 논의는 윤찬원, 「「한비자」에서 法의 객관성 문제: 老子의 道와 관련하여」, 한국철학회, 『철학』 제25집, 1986, pp. 149-172 참조.

38) 이운구, 앞의 책, p. 82.
「主道」是故去智而有明 去賢而有功 去勇而有强 群臣守職 百官有常 因能而使之 是謂習常 故曰 寂乎其無位而處 漻乎莫得其所 明君無爲於上 群臣竦懼乎下.

견을 제시하지 않으며 신하와 의논하지도 않는다. 통치에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은 신하가 한다. 군주는 그것을 지켜 볼 뿐이다. 군주는 그것을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판정하여 그에 따라 상벌을 내린다. 그것뿐이다.

『한비자』의 법치(法治)는 군주의 무위(無爲)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 텅 비고 고요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虛靜無爲). 이것이 방법(道)의 본질(情)이다. …중략… [군주가 특정한 것을] 좋아하면 [그 분야에] 일이 많아지고, [군주가 특정한 것을] 싫어하면 [그 분야에서] 원망이 생긴다. 그러므로 좋아함, 싫어함을 버리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방법(道)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주가 신하와 권력을 나누지 않아야 백성이 오히려 좋아한다. 군주는 [신하와] 더불어 논의[39] 하지 않는다. [신하가] 혼자 하도록 둔다. …중략… [그리고] 그것으로써 상받아야 할 자는 상주고 형벌을 받아야 할 자는 벌준다. 그 한 바에 따라서 각각 스스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 행한 바를 판정하여]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에 반드시 해당하게 하면 누가 [군주를] 불신하겠는가?[40]

"텅 비고 고요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아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41]는 것은 군주가 홀로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한 필살기라 할 수 있다. '군주는 두 개의 눈으로 온 나라를 보는데 온 나라는 만 개의 눈으로 군주를 보고 있'[42]는 상황에서 군주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신하와 백성들이 자신을

---

39) 『韓非子集解』에는 議로 해석(王先愼, 앞의 책, p. 48).

40) 「揚權」虛靜無爲 道之情也 …중략… 喜之則多事 惡之則生怨 故去喜去惡 虛心以爲道舍 上不與共之 民乃寵之 上不與義之 使獨爲之 …중략… 以賞者賞 以刑者刑 因其所爲 各以自成 善惡必及 孰敢不信.

41) 「外儲說右上」虛靜無爲而無見也.

42) 「外儲說右上」今人主以二目視一國 一國以萬目視人主.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위는 예측불가능성에 기반을 둔 공포정치를 도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무위무현(無爲無見)', 즉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아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와 유사한 논조는 반복된다.[43]

「주도(主道)」편에는 군주에게 자신을 비우고 인간관계로부터 고립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군주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 위험과 궁핍에 대한 결정을 자신이 내린다.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위험과 궁핍을 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군주는 '안전과 이익을 따르고 위험과 궁핍을 피하고자' 하는 인지상정(人之常情)으로부터 자유롭기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 위험과 궁핍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신의 모든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법을 독점하기 위해 군주가 해야 하는 노력은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까지 미친다. 군주는 법을 독점하기 위하여 불신을 미덕으로 실천하며 고립을 자처해야 한다.

> 군주의 환란은 다른 사람을 믿는 데 있다. 다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통제받게 된다. 신하된 자는 혈육의 친함이 없으므로 세력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군주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하된 사람은 군주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 군주는 게으르고 오만하게 그 위에 군림한다. 이것이 세간에 군주를 협박하고 시해하는 원인이다. 군주가 되어 그 자식을 크게 믿으면 간사한 신하가 자식을 타고서 그 사사로움을 이룬다. …중략… 군주가 되어 그 아내를 크게 믿으면 간사한 신하가 아내를 타고서 그 사사로움을 이룬다. …중략… 그러므로 아내만큼이나 가깝고 자식만큼이나 친한 사람도 믿어서는 안 되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44]

---

43) 예컨대, "체득된 도란 무위무현이다.(「難二」體道 無爲無見也)".

44) 「備內」人主之患在於信人 信人則制於人 人臣之於其君 非有骨肉之親也 縛於勢而不得不事也 故爲人臣者 窺覘其君心也無須臾之休 而人主憿處其上

군주는 형벌과 포상이라는 '두 개의 몽둥이(二柄)'를 반드시 자신이 사용하여야만 한다. '자신이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의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형벌과 포상을 내리는 경우를 가리킨다. 자신의 판단을 위해 신하의 말을 듣지만 판단은 자신이 내려야 하며, 특정한 신하를 전적으로 신뢰하여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신하를 자의에 따라 부려서도 안 된다. 군주와 신하는 혈육의 정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기에 군주는 신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지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 군주는 신하가 일정한 법을 따르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은 신하가 아니다. 이들은 혈육의 정으로 묶여 있기에 군주는 이들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간신은 군주로부터 직접 얻을 수 없는 신임과 권력을 군주의 아내와 자식을 통해 얻으려 한다. 이들은 군주의 아내와 자식에 편승하여 군주의 통치권을 사사로이 사용한다.

'텅 빈 군주'가 행하는 무위의 통치(無爲之治)는 사사로움을 배재하고 공적인 법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동시에 군주의 권력 독점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 (군주는) 권력을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는다. 평소대로 하여, 무위한다.[45]

> 일반적으로, 사물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있고 재능도 베풀어 져야 할 곳이 있다. 각각 그 마땅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면 위의 군주는 무위하는 것이다.[46]

此世所以有劫君弑主也 爲人主而大信其子 則姦臣得乘於子以成其私 …중략… 爲人主而大信其妻 則姦臣得乘於妻以成其私 …중략… 夫以妻之近與子之親而猶不可信 則其餘無可信者矣.

45) 「揚權」權不欲見, 素無爲也.

46) 「揚權」夫物者有所宜 材者有所施 各處其宜 故上下無爲.

> 신자(申子)가 말하기를 '군주의 총명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대비하고 총명치 못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속이려 한다. 그가 안다고 보여 지면 사람들은 꾸미고 알지 못한다고 보여 지면 사람들은 숨기려 한다. 그가 욕심 없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은 살펴보고 그가 욕심을 갖는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은 이용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나는 더욱 알지 못하게 하고 오직 무위(無爲)함으로써 바로 잡는다"고 한다'라고 하였다.[47]

5. 결론: 무위의, 무위에 의한, 무위를 위한 자유[48]

『한비자』에서 군주, 신하, 백성 중, 백성은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존재다. 문제는 신하와 군주다. 자유와 관한 벌린의 구분을 빌자면, 신하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 군주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신하는 불간섭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며 군주는 무위(無爲)라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다.

『한비자』에서 신하의 私의 추구를 '불간섭의 소극적 자유'로 본다면, 이를 제한하는 법은 신하의 '자유'와 대립된다. 『한비자』에서 세 행동주체 중, 신하와 백성은 안위를 추구하고 위해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존재다. '일반 백성들의 계산은 안전과 이익을 따르고 위험과 궁핍을 피하고자'하며 신하 역시 이러한 백성의 본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궁핍을 피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제하는 기제가 법이며 법의

---

47) 이운구 역, 『한비자 Ⅱ』, 한길사, 2002, p. 652.
「外儲說右上」申子曰 上明見 人備之 其不明見 人惑之 其知見 人惑之 不知見 人匿之 其無欲見 人司之 其有欲見 人餌之 故曰 吾無從知之 惟無爲可以規之.

48) 이경무는 『한비자』의 정치사상을 '군주의, 군주에 의한, 군주를 위한 법치'라고 요약하였다(이경무, 앞의 글, p. 71).

수호자가 군주다. 군주는 특히 신하의 '자유'를 법에 비추어 제약하는데 신하의 본능 추구를 이용하여 상벌로 신하의 행동을 통제한다.

『한비자』에서 군주는 신하와 백성과는 달리, '자유로운 존재'로 설정된다. 군주는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적인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만 법을 독점할 수 있다. 군주는 법을 독점하기 위해 무위를 실천한다. 무위를 실천하는 군주는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롭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다. 본능을 몰아내고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군주는 '텅 빈 군주'로서 본능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

군주는 "텅 비고 고요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아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군주가 누리는 자유는 무위의 자유다.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는 자유다. 군주의 자유는 무위를 위한 자유이기도 하다. 군주는 무위를 실천하기 위해 인간의 본능에 구애받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우며, 모든 사회관계로부터 거리를 두고 고독한 상황에 처함으로써 자유로운 "텅 비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무위를 실천함으로써 군주에게 주어지는 자유, 즉 무위에 의한 자유는 "텅 비고 고요"한 상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고독이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도모하는 인간의 본능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늘 의심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본능과 인간관계가 주는 타성을 능동적으로 거부해야만 실천할 수 있는 무위의 자유다.

'법은 누구의 자유를 언제 어떤 이유로 제한하며 그 제한의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면, '자유'와 관련한 『한비자』의 초점은 일차적으로는 신하를 향한다. 법은 신하의 자유를, 신하들이 사사로움을 추구할 때, 법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며, 그 제한은 군주의 통치권 독점에 근거하여 정당하다. 군주는 사사로움(私)을 추구하여 법을 무력화하려는 신하를 두 개의 몽둥이, 즉 상과 벌로 통제한다. 신하들이란 이익을 추구하고 위해를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사로움의 추구를 신하의 자유로 본다면, 불간섭의 소극적 자유는 법과 대립된다. 신하는 법의 간섭을 피하여 사사로움을 추구하고 군주는 법이 법대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신하의 자유를 제한하며 상벌로 통제한다.

법과 자유의 관계를 논할 때, 『한비자』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신하가 아닌 군주에게서 발견된다. 『한비자』를 군주에 의한 통치권의 독점이라는 관점에 국한하여 본다면, 일견 "단지 왕 한 사람만이 자유롭다"는 말이 연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군주에게 부여된 무위의 자유란 '인간적인 것들'로부터의 자유다. 인간의 본능에 따른 행동을 거부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본능과 사사로움으로부터의 자유는 오히려 천명에 입각한 숙명론으로 군주의 통치를 해석하며 "자유 의지를 토론할 여지가 없었다"고 한 천웨이핑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한비자』에서 군주는 통치권을 독점하며 자신의 의지로 국가를 통치해야만 하는 존재다. 무위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군주를 "자유 의지를 토론할 여지가 없"는 천웨이핑이 언급한 천명에 입각한 숙명론에서의 군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비자』에서 군주는 누군가의 대리인으로서 누군가의 명을 받아 통치하거나 법에 따라 그저 법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군주가 아니다. 『한비자』에서 이상적인 군주로 제시한 '텅 빈 군주'는 '밝은 군주'가 되기 위한 상태다. 군주 자신이 가장 좋은 마땅한 '길'을 판단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군주는 자신의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텅 빈' 상태를 유지하여 '밝은' 군주로서 무위를 실천해야만 한다. 무위의 자유란 군주 자신의 의지와 부단한 노력이

요청되는 적극적 자유다. 안위와 친밀감 추구라는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요구함으로써 주어지는 자유다.

『한비자』에서 군주에게 부여된 자유의 의미는 불간섭의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한비자』에서 군주에게 부여된 자유의 의미를 살펴보면, 적어도 소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의 필요조건이 아님은 분명하다. 맥컬럼(G. MacCallum)은 벌린의 소극적 자유·적극적 자유 개념 구분을 지양하여, 자유는 한 가지 유형만이 존재하며 자유의 형식은 "x는 z를 하는 데 y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설명한다. x는 행위자, y는 제약·간섭·방해, z는 목적이나 목표를 의미한다.[49] 『한비자』에서 군주의 자유를 맥컬럼의 자유 개념으로 재해석하면 "군주는 法을 실현하는 데 私로부터 자유롭다"가 된다. 군주는 엄정한 판단을 위해 본능과 친밀감으로부터 자유롭고, 법을 관철하기 위해 사사로움(私)과 굽음(曲)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벌린의 소극적 자유가 불간섭(non-interference)을 의미함을 상기할 때, 『한비자』에서 군주의 자유는 사적인 욕망이 간섭받지 않는 상태로부터의 자유, 즉 '불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역설로 귀착된다. 자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간섭의 자유를 포기해야만 法이라는 적극적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는 『한비자』의 주장은 자유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韓非子』

49) 임의영, 『형평과 정의』, 한울, 2011, p. 149.

『論語』

2. 논문

강정인 · 정승현, 「동서양의 정치적 현실주의: 한비자와 마키아벨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22집, 2014, pp. 32-71.
고재욱, 「한비자의 정치사상 연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제12집, 2004, pp. 407-444.
김진윤, 「先秦四家에 있어서 利의 의미」, 영남정치학회, 『영남정치학회보』 제5집, 1995, pp. 231-266.
박노현, 「한비자의 법·술·세치론」,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동서비교문학저널』 제25호, 2011, pp. 81-106.
박홍규, 「유교와 인권」,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제53집, 2007, pp. 217-246.
양순자, 「『한비자』의 법과 술의 관계 재조명」,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제34집, 2010, pp. 559-586.
윤찬원, 「「한비자」에서 法의 객관성 문제: 老子의 道와 관련하여」, 한국철학회, 『철학』 제25집, 1986, pp. 149-172.
이승환, 「사회규범의 공공성에 관한 법가의 인식(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제14권 1호, 2003, pp. 307-328.
이경무, 「한비자의 정치사상」,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제121집, 2012, pp. 71-94.
이동희, 「한비자의 법사상」,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제43집, 2008, pp. 263-283.
정세근, 「한비자의 노자 이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제56호, 2010, pp. 195-214.
정용환, 「한비자의 통치술에서 사적 의도들의 문제」,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36집, 2006, pp. 19-39.
진희권, 「한비자의 법치의 재해석」,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9권 2호, 2006, pp. 289-314.
허인섭, 「한비자의 도가사상 수용방식 고찰」, 한국동양철학회, 『동양철학』 제29집, 2008, pp. 225-253.
황준연, 「한비자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인식」,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제27집, 2012, pp. 305-329.

3. 단행본

이운구 역,『한비자 Ⅰ』, 한길사, 2002.
이운구 역,『한비자 Ⅱ』, 한길사, 2002.
임의영,『형평과 정의』, 한울, 2011.
陳衛平 편저, 고재욱 외 옮김,『일곱 주제로 만나는 동서비교철학』, 예문서원, 1999.
王先愼,『韓非子集解』, 北京: 中華書局, 1998.

[Abstract]

Rethinking Freedom in Hanfeizi

Koh, Eun-Kang

This article focuses on the meaning of freedom in the Hanfeizi. In the Hanfeizi's political philosophy, freedom is not absolute but relative: individual freedom cannot be defined solely but defined by a person's position relative to others. The king's freedom is oppositely related the vassals'. The vassals are the major threat to the king's freedom. They interfere the king's freedom as the king. They try to exercise power directly over the people. Their freedom is derived from the king's inability to monopolize power. If the king monopolizes power, they will become simply the puppets of the king and have no freedom, which is the ideal condition in the Hanfeizi. Even under this ideal condition, the king cannot exercise his power as he pleases. He should obey law. Although the king is in the position to use law, he should not abuse law at his will. Finally, the people are in the position to decide which order they follow between the king and the vassals. The people's freedom is freedom of choice. However, their freedom of choice relies on human instinct to pursue happiness and avoid pain.

Key words: Hanfeizi, freedom, law, human instinct, legalist.

고은강
소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주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화번호: 02-970-6256
전자우편: eunkangkoh@seoultech.ac.kr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5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